

프랑스 유력 언론 '르몽드' 전남 해조류 우수성 보도

해남·완도·신안 찾아 양식 현장 취재 김·다시마 등 유럽시장 진출 청신호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 (lemonde)에서 해남, 완도, 신안 등 전남 청정바다의 해조류의 우수성을 보도해 전남 해조류의 유럽시장 진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르 몽드에서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해조류에 관한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7월 프랑스 르 몽드의 레미바루와 줄리앙 골슈타인 기사가 해남, 완도, 신안 등 전남 청정바다를 찾아 생생한 해조류 양식 현장을 둘러봤다. 완도 해역을 돌며 김과 다시마 양식 및 양식 생산 과정을 사진에 담았다. 이어 전남지역 김 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김 제품을 맛봤다. 해남 소재 국립수산물연구원 해조류연구센터를 방문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해조류 품종 연구 개발 과정과 성과도 취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당시 직접 레미바루와 줄리앙 골슈타인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어릴 적 김을 직접 수확하고 김부각을 만들어 먹었던 경험을 소개했

다. 또한 전국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전남산 김 생산의 우수성과 위상을 설명했다.

레미바루와 줄리앙 골슈타인 기사는 프랑스가 자국에서 생산한 해조류의 대부분이 가축사료와 공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식용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어 해조류의 활용 방안과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해조류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생산량이 8만에 그쳤으나, 최근 해조류 섭취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심이 늘면서 해조류 양식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번 르 몽드의 보도는 한국의 친환경 해조류 양식 과정과 함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해조류의 우수성, 첨단화된 김 가공기술 등을 유럽시장이 주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르 몽드지 김 보도와 맞물려 전남의 청정바다에서 연간 200만 이상이 생산되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프랑스 등 유럽시장을 겨냥해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구축과 함께 고품질 해조류 양식 생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 전남도 7개소 선정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0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소가 선정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녹색자금사업은 복원 수익금을 배분받아 장애인·저소득층·노약자 등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의 거주 공간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숲을 이용하도록 산림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은 7개소 16억4000만원 규모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실외 공간에 숲과 습터를 조성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심신 치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액 녹색자금으로 이뤄진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거닐도록 목재 의사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을 설치해 산림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는 순천시 순천향립실비빌, 곡성군 예텐어린이집, 강진군 강진사랑의집, 강진군 은빛마을이,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는 목포시 삼학도 무장애나눔길, 광양시 서산 무장애나눔길,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무장애나눔길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녹색자금사업이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187억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59개소와 지역사회 나눔숲 24개소, 무장애 나눔길 5개소를 조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최근 한일 갈등으로 일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이 모두 중단됐다. 사진은 무안공항 출국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안공항 일본 하늘길 모두 막혔다

승객 급감 여파 도쿄·오사카 운항 중단 중·괌 노선 잇단 개설 활성화 방안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이 모두 중단됐다. 대신, 중국과 괌 노선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공항 활성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동절기 운항 스케줄에서 기존 무안공항-도쿄 나리타 구간을 제외했다. 기존 주 4회 운항하던 무안공항-오사카 간사이 구간도 동절기(10월 27일-3월 28일까지) 운항 스케줄에서 빠졌다.

올해 상반기 일본 기타큐슈·오이타·후쿠오카 노선이 차례로 폐쇄된 데 이어 운항 횟수를 줄였던 도쿄와 오사카 노선까지 결국 중단하면서 무안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이 중단된 셈이다.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등이 맡았던 무안공항-일본 노선이 멈춰선 데는 탑승객 감소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체의 32%

에 달했던 일본 노선 이용객이 급감했다는 게 전남도측 분석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올 상반기 도쿄는 평균 51%, 오사카는 평균 78.8%에 달하는 탑승률을 기록했지만, 9월에는 도쿄 29.9% 오사카 25.2%의 탑승률에 그쳤다.

일본 노선 중단은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무안공항 올해 누적 이용객 72만1088명(9월) 중 일본 노선 이용객이 15만2479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올해 이용객 100만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도는 만회하기 위해 중국 장자제(張家界) 노선에 이어 다음달 초 중국 하이난 산야 노선·12월 말 노선 취항을 예정하는 등 신규노선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국과 괌 노선 활성화 등 국제 노선 다변화를 통해 무안공항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소방본부, 25일 국가적 재난 긴급구조 대응 훈련

호남대·황룡강교 일원...전국서 두번째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부는 오는 25일 광산구 호남대학교와 황룡강교 일원에서 소방청·광주시 공동주관으로 '2019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은 강원도 고성산불 및 울산 선박화재와 같이 대형화·복합화하는 재난이 전국 어디서라도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며, 국가적 대형복합재난을 가정해 진행된다.

어등산 일대를 비행하던 비행기가 원인 미상의

화재로 추락하면서 호남대 건물과 무안광주고속도로 교량을 추돌해 대형산불, 건물화재·붕괴, 다중추돌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이 발생해 광주시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했다.

소방청,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및 10개 시·도가 합동 대응하며 환경부, 산림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산보건소, 공군제1전투비행단 등 총 90개 기관·단체 900여 명, 헬기 9대 등 160대가 동원된다.

다중추돌 교통사고 대응 훈련 시에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어등대로 영광에서 시내로 가는 방면의 일부 구간(호남대 전다축구장~호남대 정문) 교통이 통제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의회 '부의장 수행비서' 철폐

광주시의회가 적절성 논란을 빚었던 부의장 수행비서 충원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부의장을 수행할 7급 상당의 직원 충원 계획을 철폐하겠다는 공문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앞서 시의회는 "부의장들이 의장 공석시 회의 진행 또는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수행비서가 필요하다"며 수행비서 충원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의원들의 수행 업무를 한명이 맡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탈권위주의로 가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아 이를 고려해 철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적자 운영 한옥호텔 여수 오동재 전남개발공사, 민간 위탁키로

전남개발공사가 적자 운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옥호텔 여수 오동재를 민간 위탁키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최근 대구지역 부동산 중개·대리업체인 티디에이치씨리뷰와 3년 간 여수 한옥호텔 오동재의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옥호텔인 여수 오동재를 운영하다 적자가 지속되면서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발공사측은 이번 계약으로 연간 5억원 규모의 위탁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영업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1회 고흥 유자 축제

Goheung Yuja Seoglyu Festival

2019. 10. 30. - 11. 3. / 5일간

장소: 고흥군청 앞 유휴부지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고흥군축제추진위원회

유자·석류 재미있게 보고, 맛있게 먹고, 신나게 즐기라!